

# 2018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기계 | 조선 | 전자 | 섬유 | 철강 | 반도체 | 자동차 | 디스플레이 | 건설 | 금융·보험



# 목차

	요약 .....	02
	기계 .....	06
	조선 .....	10
	전자 .....	14
	섬유 .....	18
	철강 .....	22
	반도체 .....	26
	자동차 .....	30
	디스플레이 .....	34
	건설 .....	38
	금융·보험 .....	42
	용어정의 .....	46
	전망방법 .....	47

## 요약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계·전자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업종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증가(↑) <1.9%	크게 감소(↓↓) <-20.8%	증가(↑) <1.7%	감소(↓) <-2.6%	유지(↔) <-0.1%	크게 증가(↑↑) <6.5%	유지(↔) <0.1%	유지(↔) <-0.9%	유지(↔) <0.3%	유지(↔) <1.4%

주: 1) 괄호 안 수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증감률

2)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 증감율을 기준으로 4.5% 이상이면 '크게 증가', 1.5% 이상 4.5% 미만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4.5% 이상 -1.5% 미만이면 '감소', -4.5% 미만이면 '크게 감소' 표시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 기계 : 증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중국·신흥국 등에서 기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9%(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선 : 크게 감소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공급 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건조량도 평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조선 업종



## 전자 : 증가

전자·IT 성장세 지속, OLED·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관련 전자 제품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전자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 업종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7%(12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 감소

섬유 수출 단가 하락세가 완화되고, 수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섬유제품의 전반적인 생산 감소, 중국·미국·중동 등의 자체 생산 확대와 섬유제품 수요 감소, 자동화 설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상반기 섬유 업종의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강 : 유지

중국 생산량 감축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산업 여건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나, 건설, 조선 등 국내 철강 제품 수요 산업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시황 부진의 여파로 신규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 크게 증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로 기존 PC, 스마트폰 등의 전통적 수요처에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으로 반도체 수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에서도 시설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5%(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약



## 자동차 : 유지

2018년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수준인 182만 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률 둔화,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 증대,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스플레이 : 유지

스마트폰 및 TV 채용 확대에 OLED 패널의 수출과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LCD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과 생산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0.9%(1천 명) 감소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 유지

2016년 이후 수주 호조세를 주도한 민간 수주가 줄어들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공공 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 투자도 수주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0.3%(5천 명)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보험 : 유지

은행업은 가계 부채 관련 규제 강화와 국내 경제 회복세 소폭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이자 수익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경영 실적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업과 보험업종에서도 성장세는 지속하나 성장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년 7월 7개 제조 업종\*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조선 업종, 2015년 7월 이후 건설 업종, 금융·보험 업종을 추가해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반기별 일자리 전망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섬유, 자동차, 전자, 철강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DB,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해 수요 측면의 일자리를 전망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회(Sector Council)를 통한 경기전망과 더불어 직종, 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구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의 고용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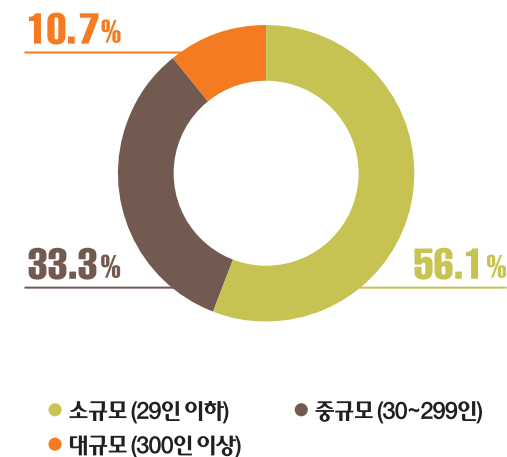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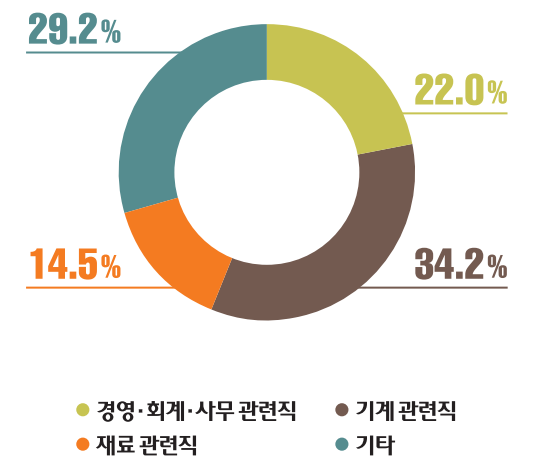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75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5.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7.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주로 기계 관련직(34.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2.0%), 재료 관련직(14.5%)으로 구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7.4%), 경기 시흥시(4.4%), 경남 김해시(3.7%), 경남 창원시 성산구(3.6%), 인천 남동구(3.5%), 부산 강서구(3.3%), 경기 안산시 단원구(3.2%)에 다수 위치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741천 명)에 비해 2.0% 증가하여 15천 명 고용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 중소기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산업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40.7천 명, 채용인원 31.0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9.7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3.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12.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각 23.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0.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관련직(40.1%),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6.0%), 재료 관련직(14.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8.9%), 경남(15.8%), 충남(7.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3.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이 30.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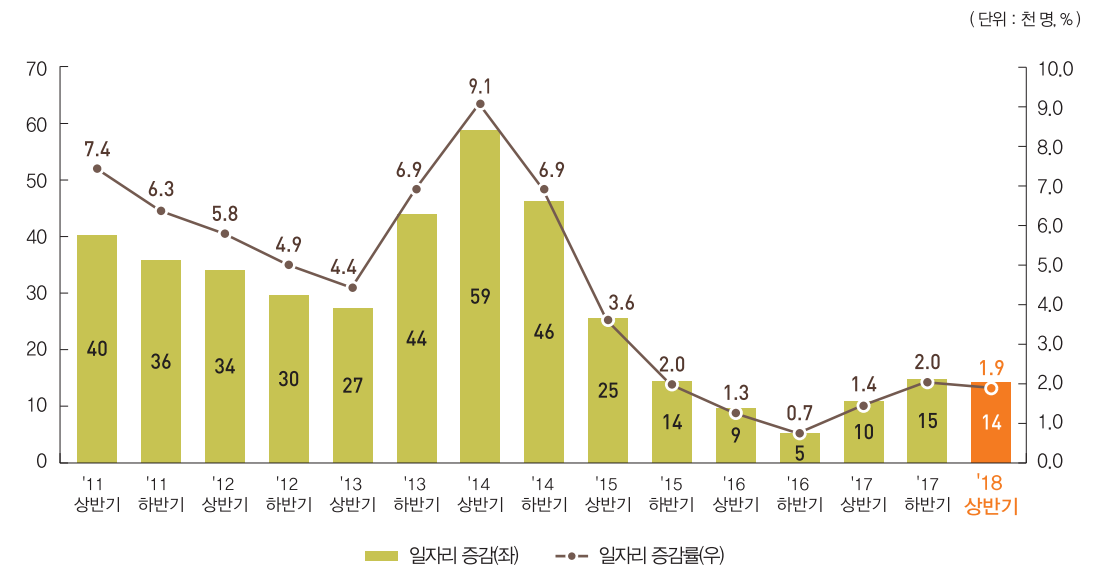
## 경기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미국, 중국, 신흥국의 수요 확대에 고용증가가 전망되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국내 설비투자 둔화 등은 고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건설 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 등 제약요인이 존재함
  -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및 자동화 설비투자 증가로 수출 증가가 전망되나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중 간 기계 기술격차의 지속적인 감소 및 중국의 기계기술력 강화, 중국의 자국산 설비 대체 노력으로 수출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중국 기계 기술의 성장 및 첨단 기계 기술에서의 격차 축소를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중국과의 제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의 SOC 및 설비투자 증가. 해외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수출 증가 지속 전망
  - 중동의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수출 회복 기대
-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은 국내 기계 산업의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6.9	3.6	2.0	1.3	0.7	1.4	2.0	1.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기계 업종은 생산 및 수출의 증가로 고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1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직종별로 보면 재료 관련직과 화학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나, 기계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 고용 감소가 예상되나, 기계 업종 취업자가 많은 경기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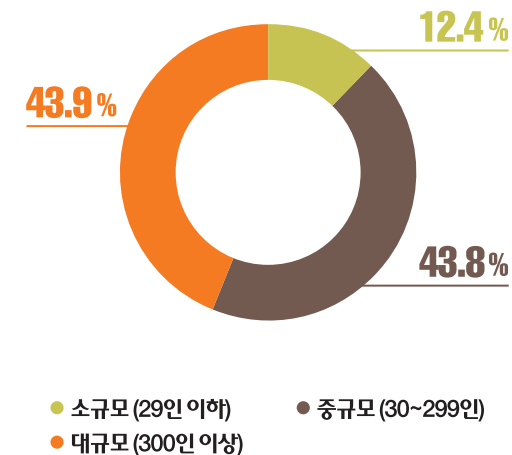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과 해양 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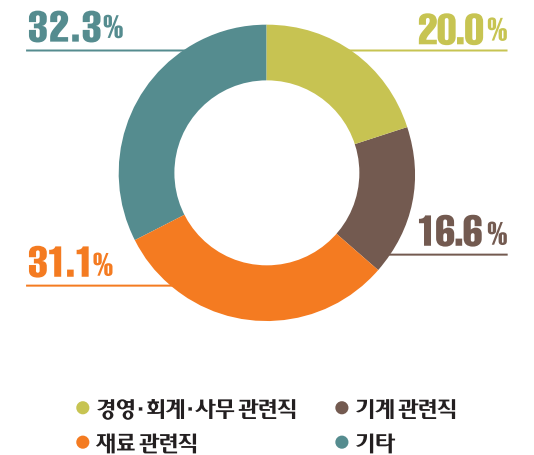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42.6%), 울산 동구(28.0%)에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남 영암군(8.9%), 부산 영도구(3.8%), 울산 울주군(2.2%), 경남 창원시 진해구(2.2%), 경남 통영시(1.7%) 등에 위치
  - 직종별로는 주로 재료 관련직(31.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0.0%), 기계 관련직(16.6%)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61천 명)에 비해 26.2% 감소하여 42천 명 고용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4.4천 명, 채용인원 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4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8.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2.9%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40.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1.8%)'에 이어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재료 관련직(39.3%), 건설 관련직(17.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4.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43.1%), 울산(32.0%), 전남(18.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무관', '경력무관'인 지원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박사 수준의 업무',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필요'가 3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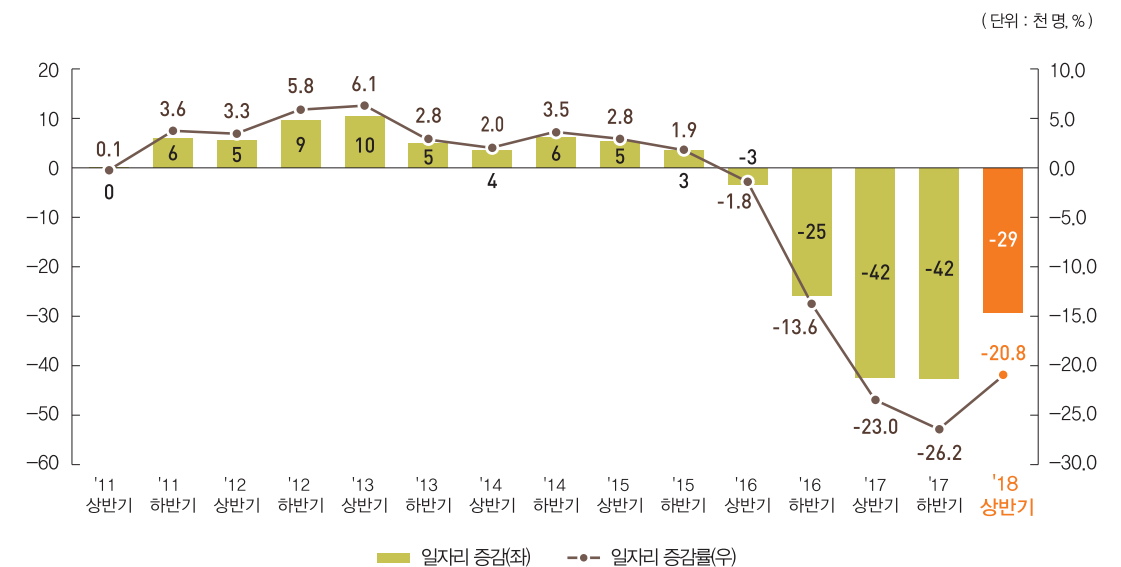
## 경기전망

- (산업전반)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으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 보임
  - (동향) 2017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25만 CGT로 전년대비 78% 증가했지만 과거 평균발주량(1996~2016년 3,699만 CGT) 대비 크게 부족
  - (전망) 2018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2,780만 CGT로 증가할 전망이나 최근 5년간 평균발주량(2013~2017년 3,666만 CGT) 대비 여전히 부족
  - OPEC 원유 감산 합의가 연장되어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발주는 증가 전망
- 2018년 수주시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는 감소 지속 예상
  - 2016년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발주가뭄으로 한국은 215만 CGT 수주에 그쳤음. 하지만 이후 2017년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200% 증가한 644만 CGT를 기록하며 수주량 회복세 보임
  - 2018년 수주시황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나, 건조량의 감소로 국내 조선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금년도 수주가 증가해도 건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감 부족에 의한 건조량 및 수출 감소가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선사의 구조조정 및 비핵심 자산매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크게 감소)

###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3.5	2.8	1.9	-1.8	-13.6	-23.0	-26.2	-20.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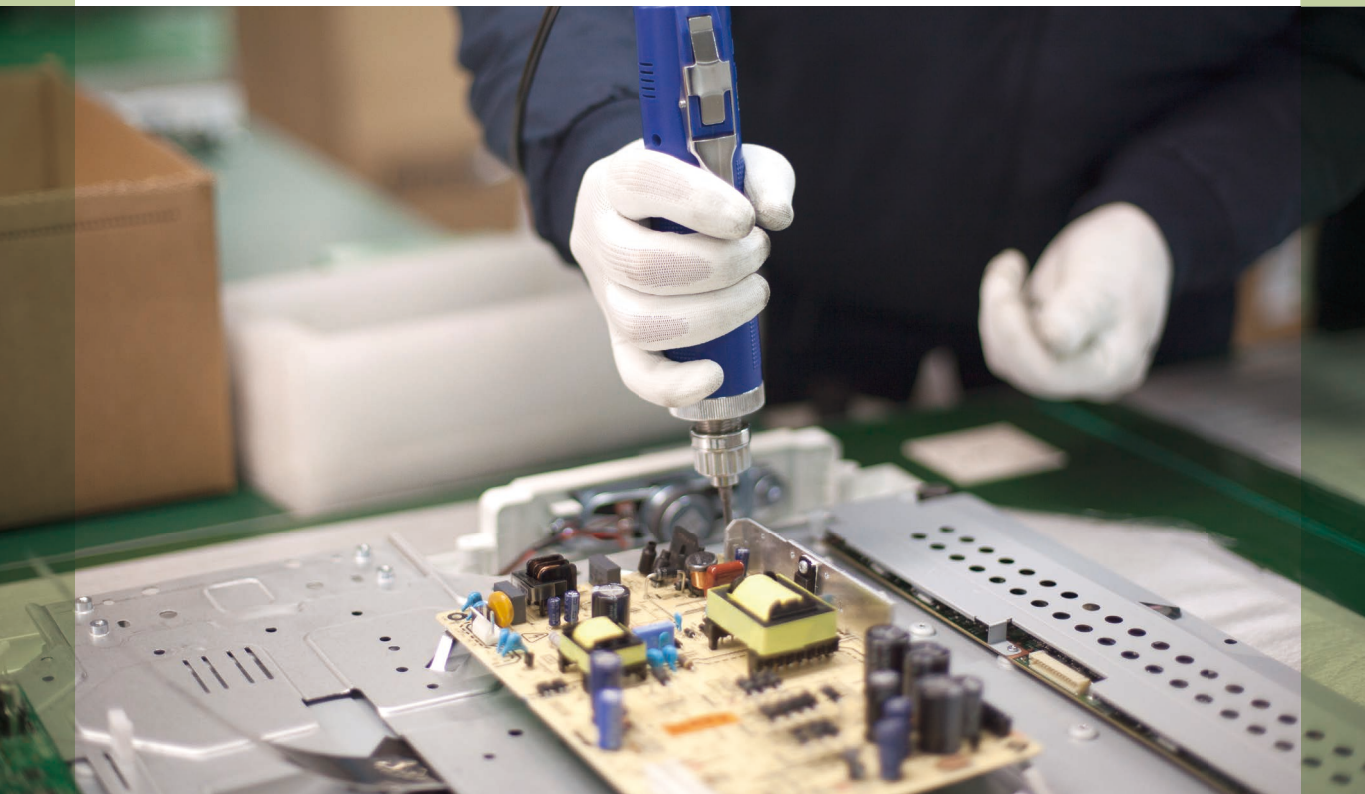
- 2018년 상반기 조선 업종은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고용 수준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 20.8%(29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다만 2017년 말 이후 고용 감소 속도는 둔화되어 2018년 상반기 중 고용감소량은 2017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중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직종별로 보면 재료 관련직, 건설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등에서 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조선 업종 취업자가 많이 위치한 경남, 울산 등에서 고용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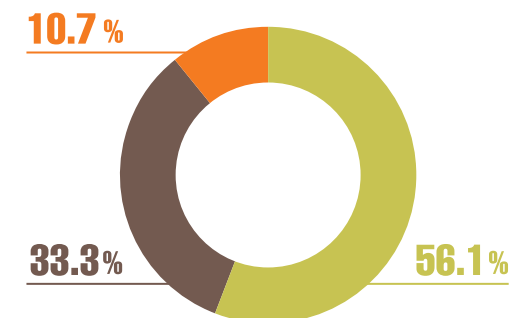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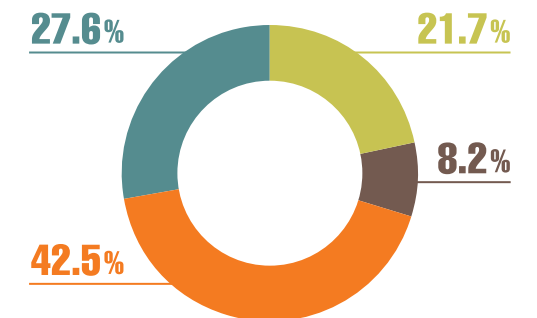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별 구성



● 소규모 (29인 이하) ● 중규모 (30~299인)  
● 대규모 (300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기계 관련직  
● 전기·전자 관련직 ● 기타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0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5.5%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1.2%), 전기장비 제조업(29.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4%)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 전자 관련직(42.5%),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1.7%), 기계 관련직(8.2%)으로 구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6.4%), 서울 영등포구(10.5%), 경기 용인시 기흥구(5.4%), 경기 안산시 단원구(3.9%), 경기 화성시(3.3%), 경북 구미시(2.9%) 등에 다수 위치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695천 명)에 비해 1.7% 증가하여 12천 명 고용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1,000인 상 대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산업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모든 사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기장비 제조업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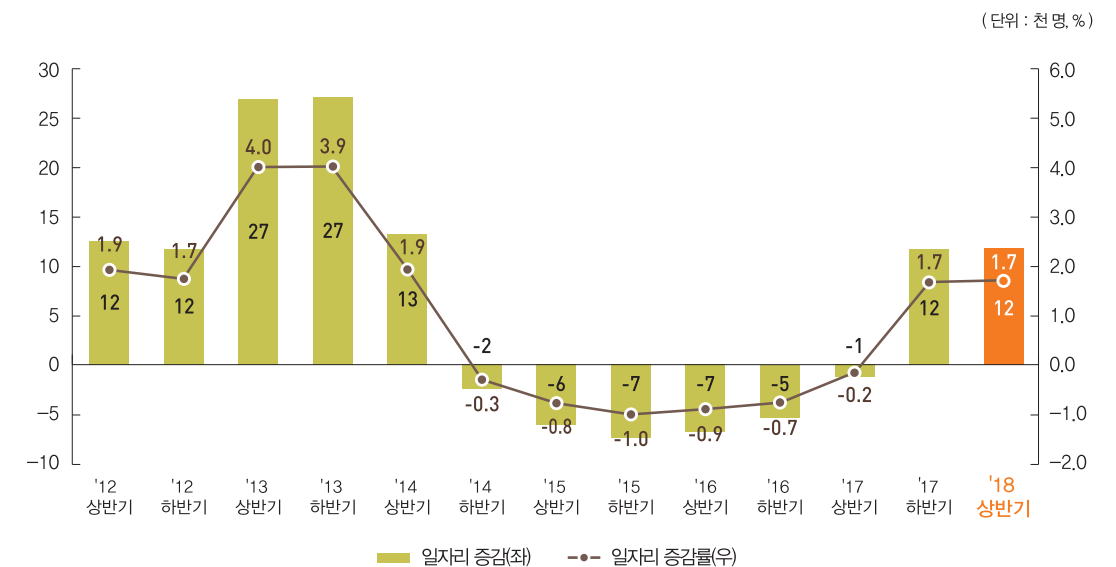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22.1천 명, 채용인원 19.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9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13.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1.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6.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5%)'에 이어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19.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관련직(53.4%),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3.8%),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9.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4.9%), 인천(15.0%), 경북(10.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이 30.5%로 나타남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경기전망

- 글로벌 전자·IT 성장세 지속, OLED·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관련 전자 제품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
  - (반도체) 해외 경쟁사의 공정 전환 등 타이트한 수급에 의한 단가 상승세 지속, 파운드리 및 IDM 공략 강화 등으로 품목 사상 처음 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전망
  - (TV) OLED 및 UHD TV 시장 확대의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해외 생산 및 부분품 현지 조달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중국 로컬 기업의 시장 점유율 강화, 일본 기업의 점유율 회복 등)로 하락세 지속
  - (SSD) 스토리지 시장 등에서 HDD에서 SS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SSD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가 수출 증가세 주도
  - (휴대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 심화 및 이로 인한 원가 인하 압력 타개를 위한 해외 생산 확대에 수출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0.3	-0.8	-1.0	-0.9	-0.7	-0.2	1.7	1.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전자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9%(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직종별로 보면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재료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남, 충남 등에서 고용이 소폭 감소하나,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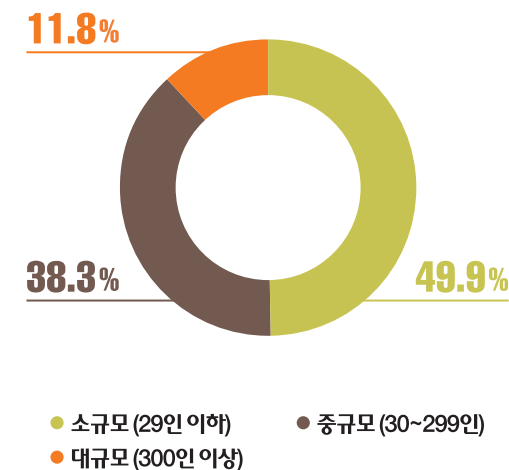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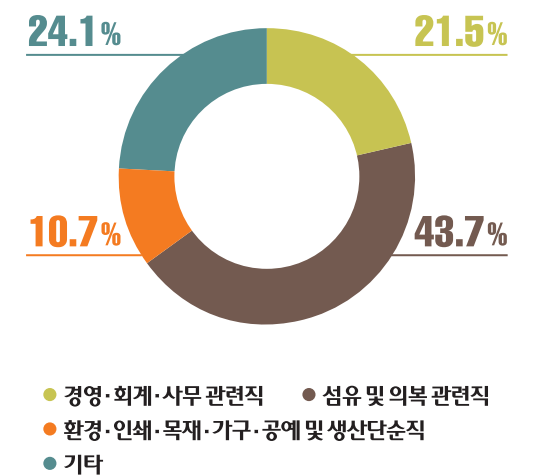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8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1.4%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58.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6.1%)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주로 섬유 및 의복 관련직(43.7%),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1.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0.7%)으로 구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8%), 서울 강남구(4.5%), 경북 구미(3.6%), 대구 달서구(3.4%), 경기 양주시(3.3%), 경기 포천시(3.0%) 등에 위치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89천 명)에 비해 2.9% 감소하여 5천 명 고용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 감소
  - 산업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고용 비중이 큰 섬유제품 제조업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주로 고용이 감소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9.3천 명, 채용인원 7.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6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17.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5.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8%)'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4%)'과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3.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 및 의복 관련직(36.7%),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9.1%), 영업 및 판매 관련직(13.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38.1%), 경기(30.8%), 대구(6.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가 32.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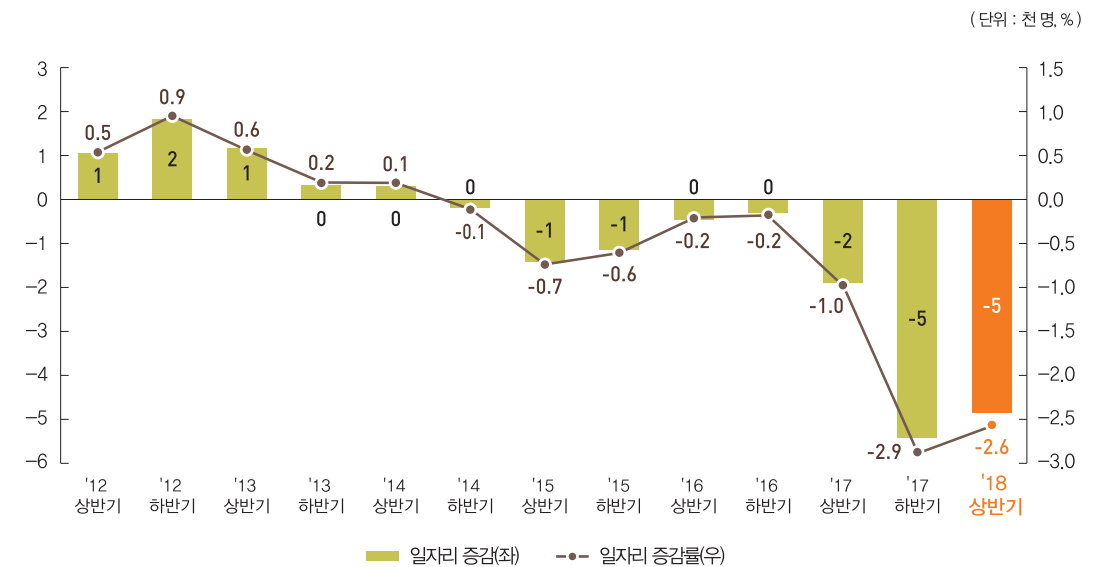
## 경기전망

- (단가·물량) 섬유류 수출 단가 하락세 완화, 수출물량 증가
  - 화섬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섬유원료 및 사류의 수출단가 상승세는 지속, 직물류 및 섬유제품은 수출단가 하락세 완화 전망
  - 국내 제조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전략과 마케팅 강화 등으로 수출물량 소폭 증가 예상
- (세부품목) 원료/사 및 직물 생산은 증가, 섬유제품 생산은 소폭 감소 예상
  - 원료/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는 베트남 등의 수요증가와 차별화제품 생산 확대 노력 및 산업용분야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 전망
  - 의류 등 섬유제품은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 확대에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해외 생산 확대 영향 등으로 감소 지속 예상
- (지역별) 아세안·EU·중남미 수출 소폭 증가, 중국·미국·중동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전망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 중남미 지역은 선진국 오더 증가로, EU는 소비 회복세로 각각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국, 미국 등은 자체생산 확대와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0.1	-0.7	-0.6	-0.2	-0.2	-1.0	-2.9	-2.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직종별로 보면 재료 관련직, 화학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소폭 증가하지만,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경기, 경북, 전북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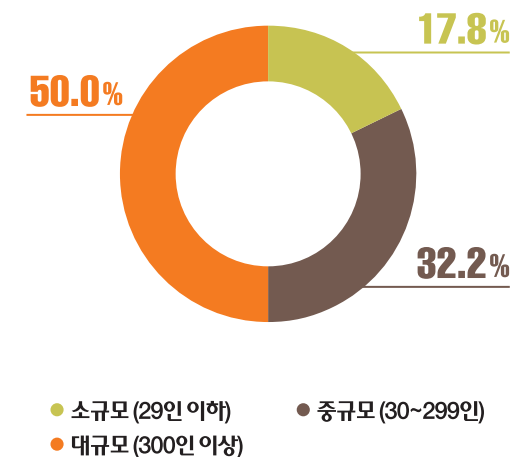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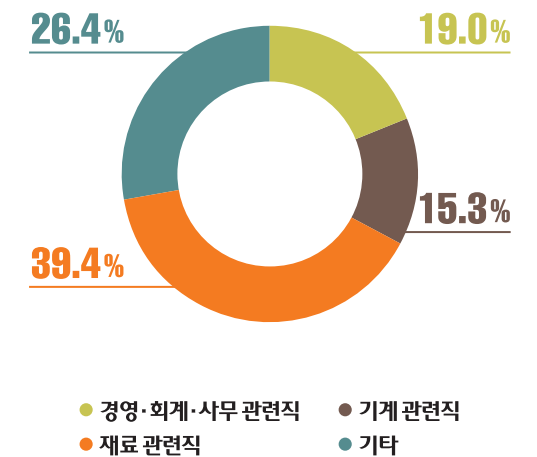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4.3%), 경남 창원시 성산구(10.1%), 충남 당진시(8.9%), 전남 광양시(4.0%), 울산 울주군(3.9%), 경기 안산시 단원구(3.0%)에 주로 위치
  - 직종별로는 주로 재료 관련직(39.4%),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9.0%), 기계 관련직(15.3%)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15천 명)에 비해 1.3% 감소하여 1천 명 고용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히 고용이 크게 감소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5.4천 명, 채용인원 4.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1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20.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p 높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9.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4.9%)',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0.2%)'에 이어 '통근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11.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재료 관련직(33.6%), 기계 관련직(21.7%),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0.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9.9%), 경남(15.5%), 경북(12.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9.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학력무관', '경력무관'이 3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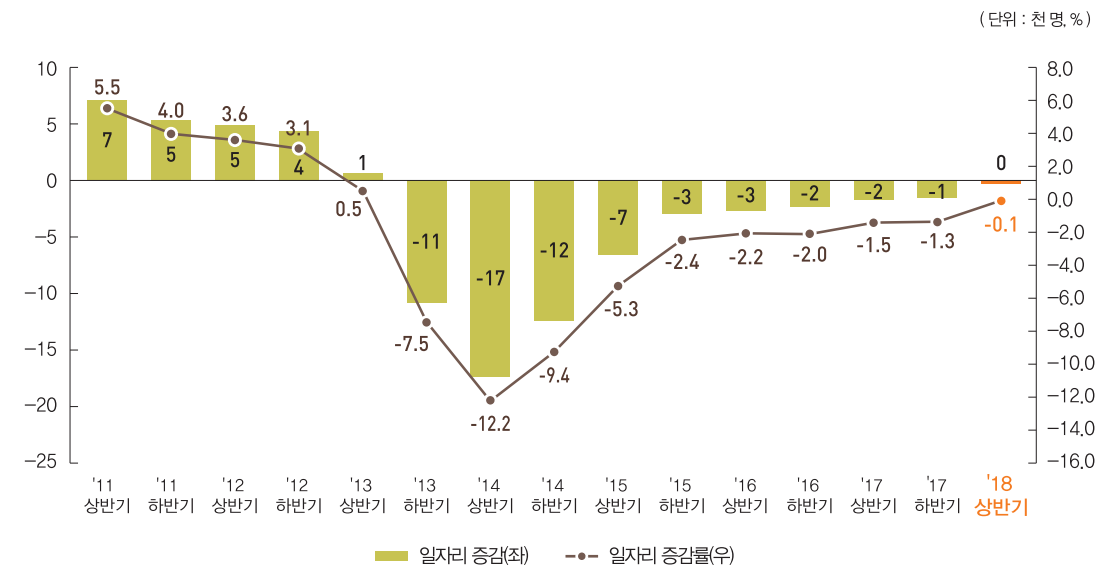
## 경기전망

- 2018년 철강산업은 중국 생산량 감축 및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산업여건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불확실성이 상존
  - (한국) 대미 FTA 재협상, 반덤핑·상계관세 등과 같은 무역규제 증가, 수요산업(조선, 건설) 침체 등 대외 악재로 인한 제한적 성장
  - (중국) 전인대 등 정치 사이클 영향 소멸, 레버리지 부담 누적 등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둔화 불가피 전망
  - (미국) 견조세 지속, (EU) 회복세 지속되나 증가 폭은 둔화
  - (아세안/인도) 호조세 지속
- 2018년 국내 철강수급은 생산(△1.2%), 내수(△0.4%), 수출(△2.9%), 수입(△0.1%) 모두 감소 전망
  - (생산) 건설 경기 둔화(내수 부진) 및 수입규제 심화(수출 부진)로 전년비 1.2% 감소 전망
  - (내수) 건설 둔화, 조선 부진 심화로 전년 대비 소폭 하회 전망
  - (수출) 전년비 2.9% 감소 전망, 수입규제 글로벌 확산 시 감소 폭 확대 가능성 상존
  - (수입) 내수 부진으로 전년 수준 예상되나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산 증가 가능성
- 철강시황 부진 여파로 신규채용 감소 전망
  - 최근 철강업계는 생산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보다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분 충원 위주의 채용 형태
  - 수요산업 부진 장기화 및 생산·내수 감소로 신규채용 감소 예상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9.4	-5.3	-2.4	-2.2	-2.0	-1.5	-1.3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1%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 감소 전망
- 직종별로 보면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일자리 감소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인천, 울산, 충남,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 경기, 전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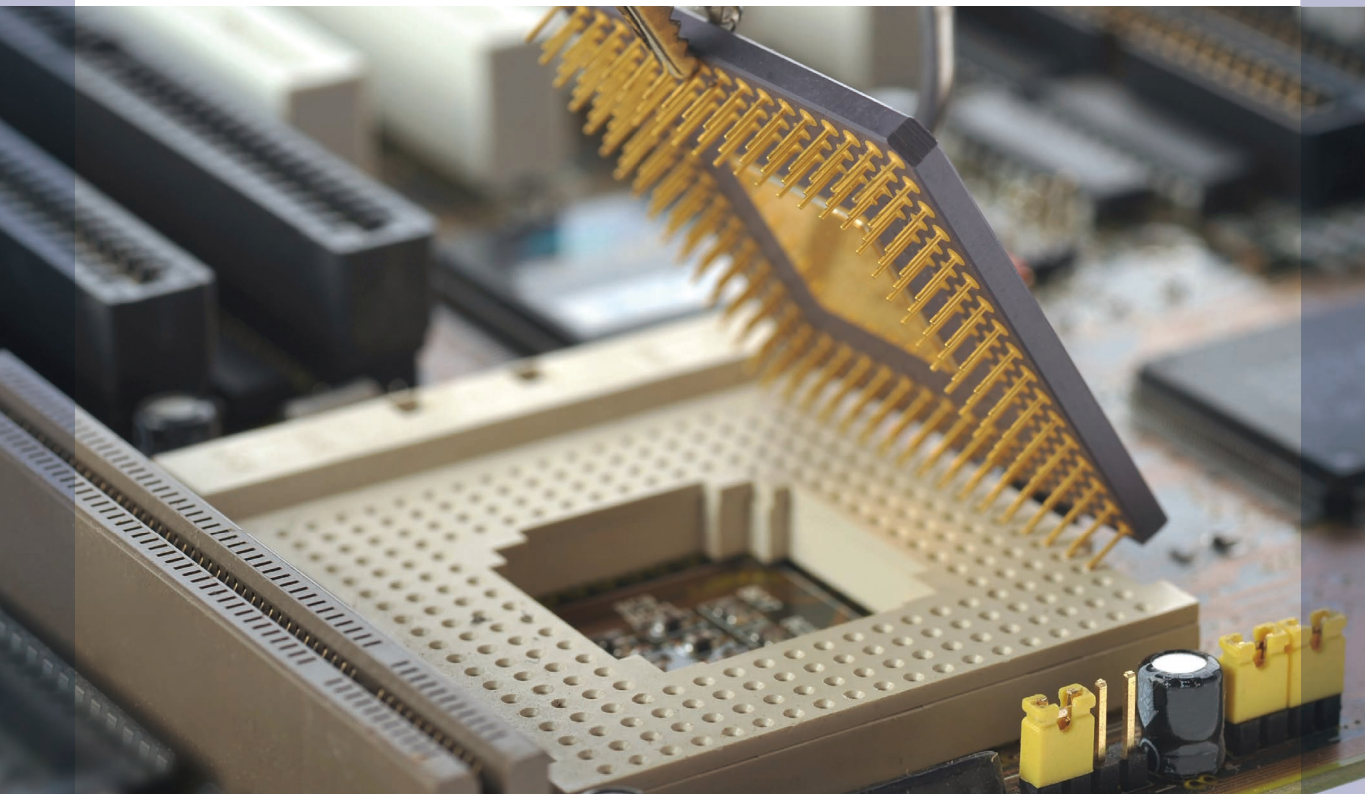




#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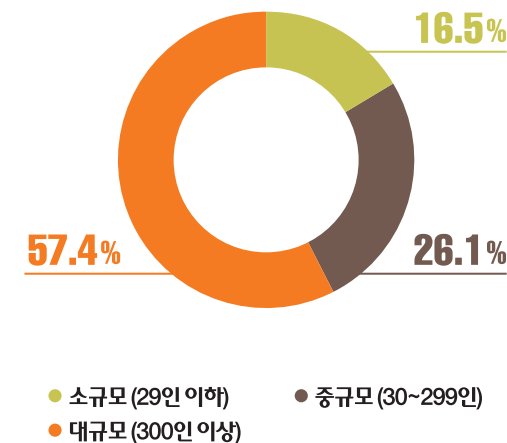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IT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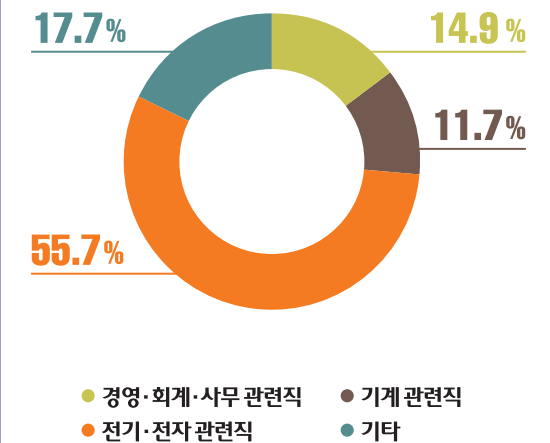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3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0.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70.3%)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7%)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 관련직(55.7%),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4.9%), 기계 관련직(11.7%)으로 구성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1.4%), 경기 화성시(8.3%), 충북 청주시 흥덕구(5.8%), 충남 아산시(4.5%), 경북 구미시(4.4%), 광주 북구(4.0%)에 주로 위치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06천 명)에 비해 6.6% 증가하여 7천 명 고용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고용은 증가
  - 산업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대비 모든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9.3천 명, 채용인원 7.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9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0.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p 높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8.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54.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2.8%)'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1.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관련직(44.6%), 기계 관련직(21.3%),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1.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1.6%), 충남(10.1%), 인천(7.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 필요'가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2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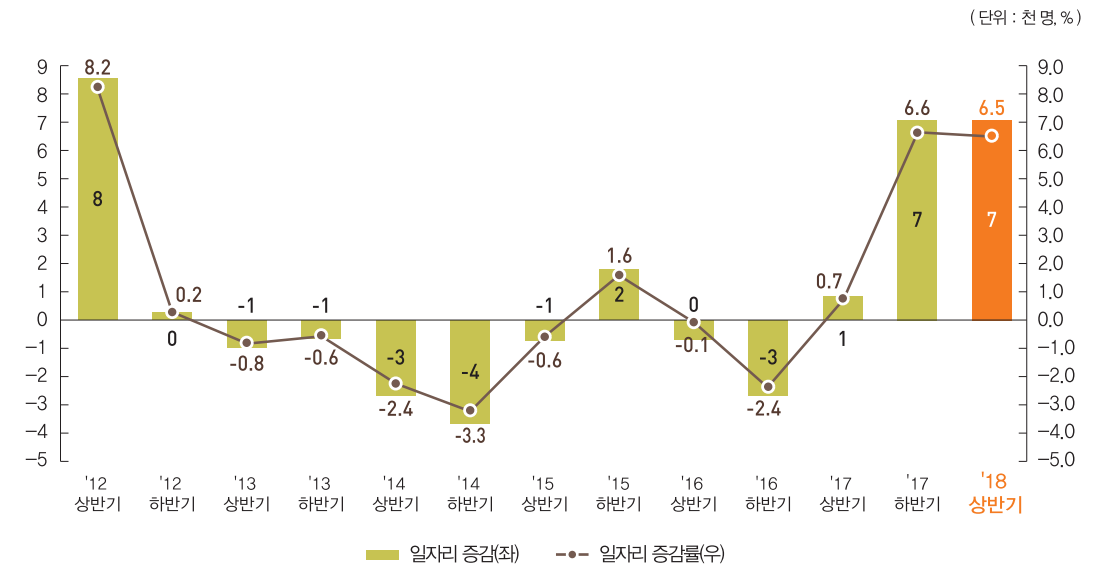
## 경기전망

- (성장세 유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로 기존 PC, 스마트폰 등의 전통적 수요처에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으로 반도체 수요 범위가 확대
  - (메모리반도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반도체(서버용 DRAM 및 SSD 등) 수요 강세로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 지속 및 IT 기기 당 메모리반도체 탑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호황 지속 전망
  - (시스템반도체) IoT, 자율주행차 등 신규시장 성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반도체 기업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성고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 유지할 전망
- (장비·소재산업 성장세 지속)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평택공장) 및 SK하이닉스 등의 시설투자 확대에 따라 장비·소재산업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 (매출 및 고용 확대)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조상 반도체 소자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메모리반도체산업 호황 및 설비투자 증대에 힘입어 매출 및 고용 확대 전망
  - (중국 설비투자) 국내 설비투자 외에도 반도체공기를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 설비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올해 중국내 사상 최대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의 매출 증대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크게 증가)

###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3.3	-0.6	1.6	-0.1	-2.4	0.7	6.6	6.5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업황 호조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6.5%(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종별로 보면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나, 전기·전자 관련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전북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나, 인천, 경기, 충남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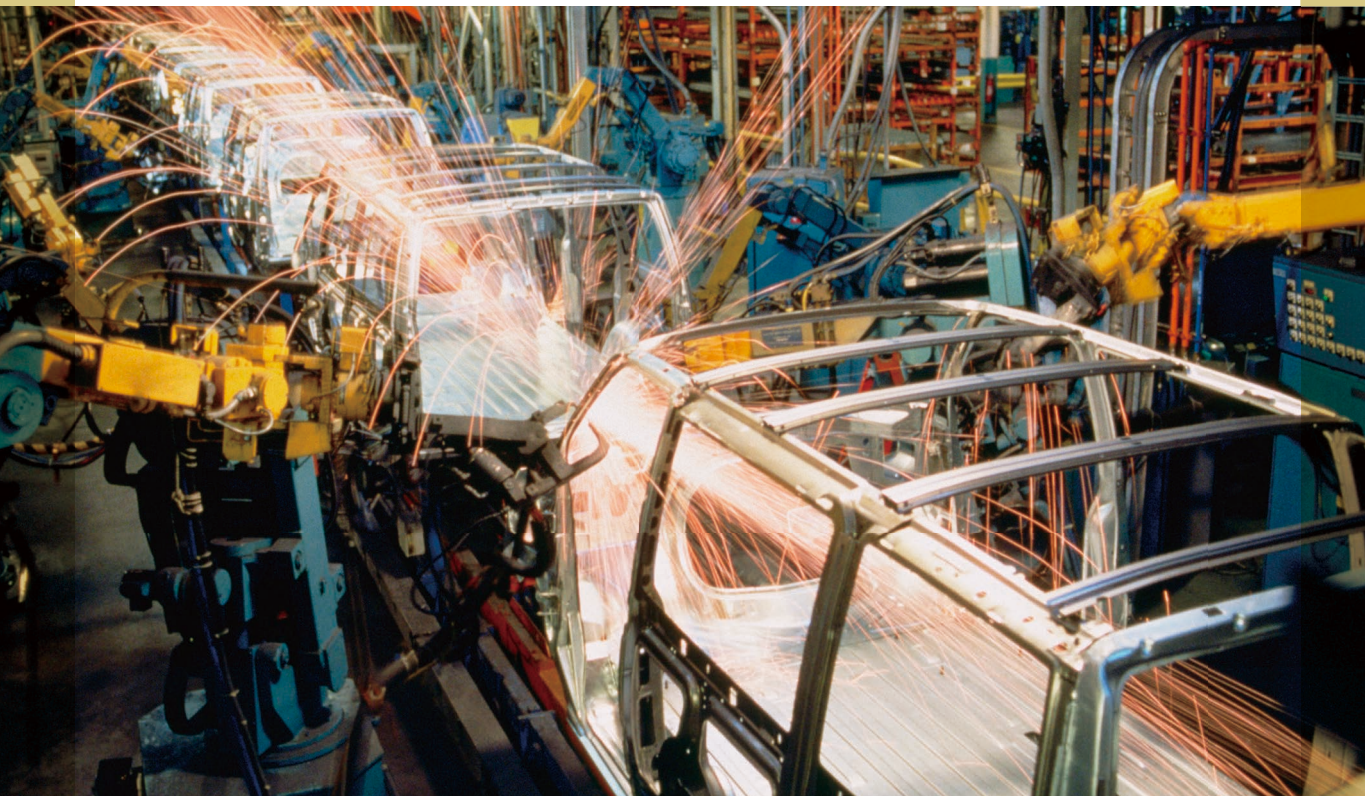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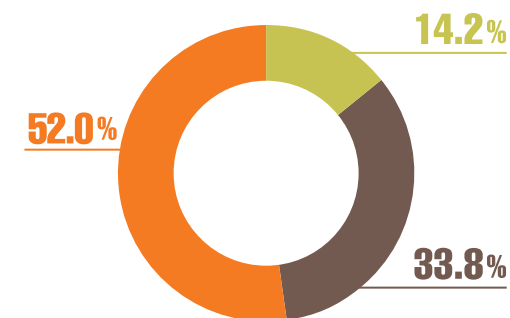
## 업종 설명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다양한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산업 등에서 만들어진 3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종합 제조업



##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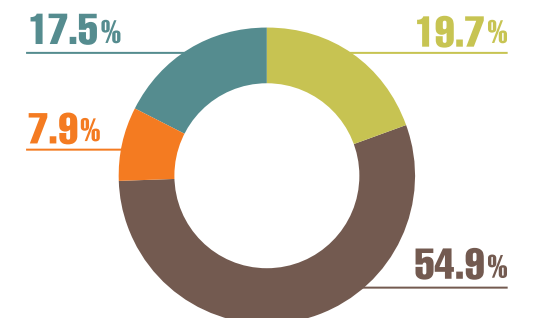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별 구성



● 소규모 (29인 이하) ● 중규모 (30~299인)  
● 대규모 (300인 이상)

자료 : 고용보험DB

### 직종별 구성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기계 관련직  
● 재료관련직 ● 기타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40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2,918천 명)의 3.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울산 북구(10.6%), 서울 서초구(10.3%), 경기 화성시(6.1%), 충남 아산시(4.5%), 경남 창원시 성산구(3.7%), 경기 평택시(3.7%), 경북 경주시(3.4%)에 주로 위치
  - 직종별로는 주로 기계 관련직(54.9%),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9.7%), 재료 관련직(7.9%)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16년 하반기(398천 명)에 비해 0.5% 증가하여 2천 명 고용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고용은 증가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12.2천 명, 채용인원 10.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1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16.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5.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1%)'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0%)',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관련직(46.0%),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8.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3.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남(16.4%), 경기(15.5%), 경북(13.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무관', '경력무관'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이 2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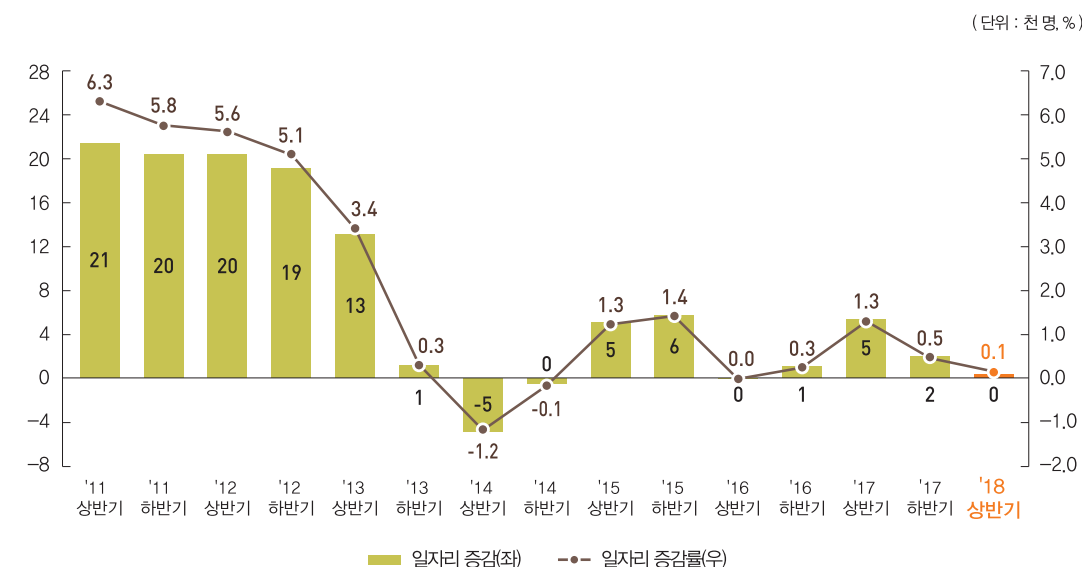
## 경기전망

- (내수) 2018년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수준인 182만 대 수준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산차 판매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출시 예정 모델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그랜저의 신차효과 감소,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소폭 감소한 153만 대 판매 전망
  - 수입차 판매는 디젤게이트 등으로 판매가 중지되었던 폭스바겐, 아우디의 판매 재개 등으로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서 29만 대 판매 전망
- (수출) 세계 자동차시장 성장을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 증대,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은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한 257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생산) 국산차 내수판매 부진과 수출 감소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한 410만 대 생산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0.1	1.3	1.4	0.0	0.3	1.3	0.5	0.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DB,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고용 증가세는 유지하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직종별로 보면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계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고용 감소가 예상되나, 서울, 광주, 울산, 경기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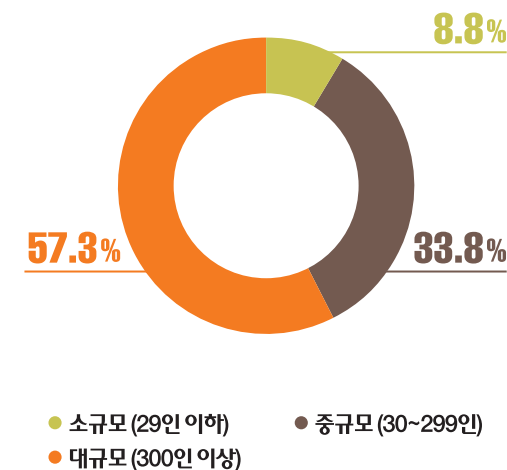
## 업종 설명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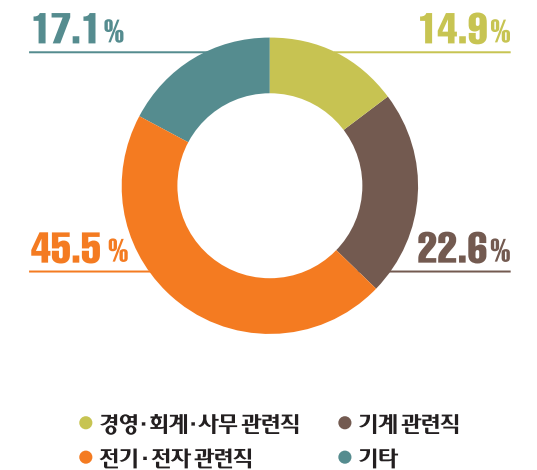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 2017년 하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30천 명 수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7.3%로 절반을 상회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8.8%
- 직종별로는 주로 전기·전자 관련직(45.5%), 기계 관련직(22.6%),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4.9%)으로 구성

###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38천 명)에 비해 6.2% 감소하여 9천 명 고용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와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은 감소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5.8천 명, 채용인원 4.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2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21.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10.0%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51.6%)',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4%)'에 이어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9.7%)',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9.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관련직(36.4%), 전기·전자 관련직(24.4%),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1.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9.3%), 충남(17.9%), 경북(11.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가 2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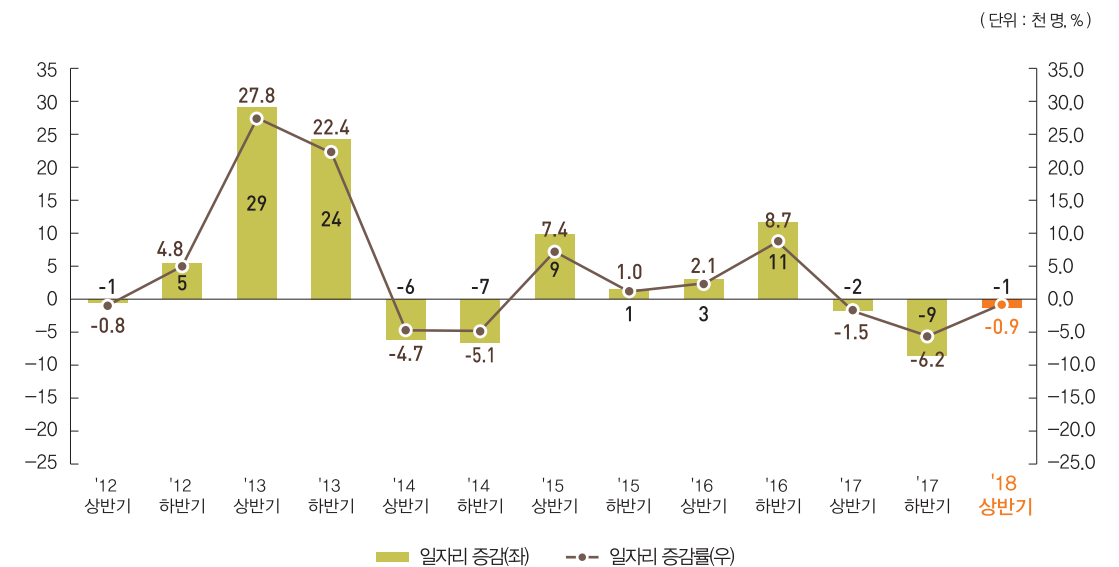
## 경기전망

- 2018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대비 1% 성장한 1,258 억불 전망
- 스마트폰 및 TV 채용 확대로 OLED 수출은 증가하나, LCD 패널 가격 하락세 반전 등으로 전체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279억 달러 전망
- 중소형 OLED 패널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LCD 공급 과잉 영향으로 전반적 시장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LCD 공급은 크게 확대되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OLED는 삼성이 주도하는 가운데 애플 아이폰X 출시, 삼성의 폴더블폰 론칭 등을 바탕으로 성장 전망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5.1	7.4	1.0	2.1	8.7	-1.5	-6.2	-0.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9%(1천 명) 감소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하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 감소 예상
- 직종별로 보면 기계 관련직에서 고용이 증가하나,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화학 관련직과 전기·전자 관련직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북 등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나, 경기, 충북 등에서는 일자리 감소 예상



#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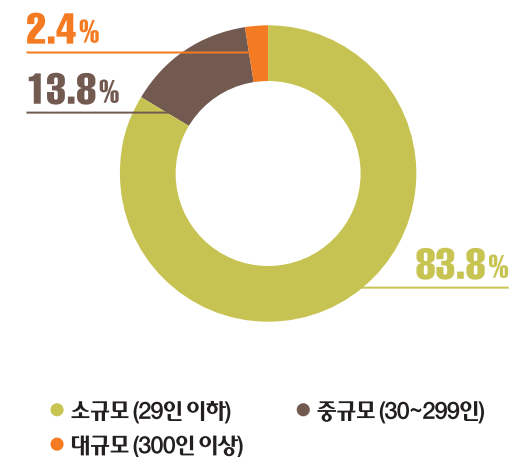
## 업종 설명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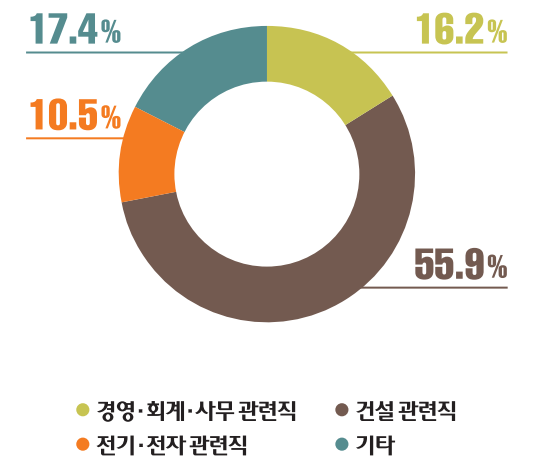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건설업 근로자 규모는 1,98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26,770천 명)의 7.4%를 차지(경제활동인구 기준)
  - 직종별로는 주로 건설 관련직(55.9%),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6.2%), 전기·전자 관련직(10.5%)으로 구성
- 건설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1,901천 명)에 비해 4.5% 증대되어 85천 명 고용 증가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80.9천 명, 채용인원 77.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4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4.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7.5%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4.5%)',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0.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9%)'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 관련직(76.0%), 전기·전자 관련직(7.5%), 경영·회계·사무 관련직(5.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28.1%), 전북(10.1%), 경기(9.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무관', '경력무관'이 3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3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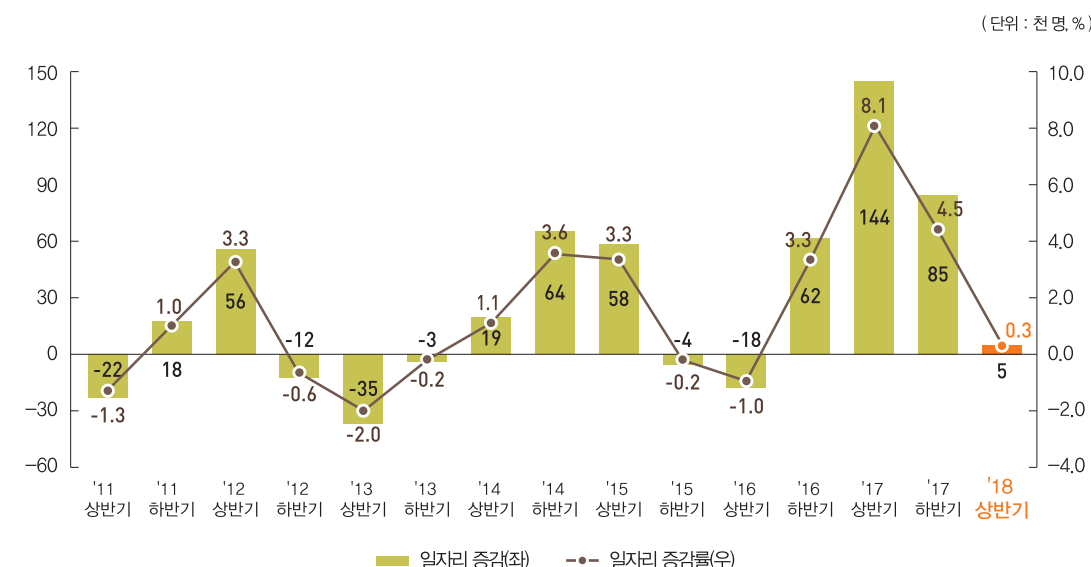
## 경기전망

- 2018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이후 수주 호조세를 주도해왔던 민간 주택 수주 및 비주거 건축 수주가 감소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건설 수주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공공 수주도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건설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건설 투자는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공종별로 보면 토목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건설 투자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 투자 역시 증가폭이 하락함
  - 2017년 하반기 수주 감소세의 영향으로 2018년에도 건설 투자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투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전망
  - SOC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2018년에도 토목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2018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3.6	3.3	-0.2	-1.0	3.3	8.1	4.5	0.3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2017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3%(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종별로 보면 건설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나,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 등에서 고용 증가 예상



# 금융·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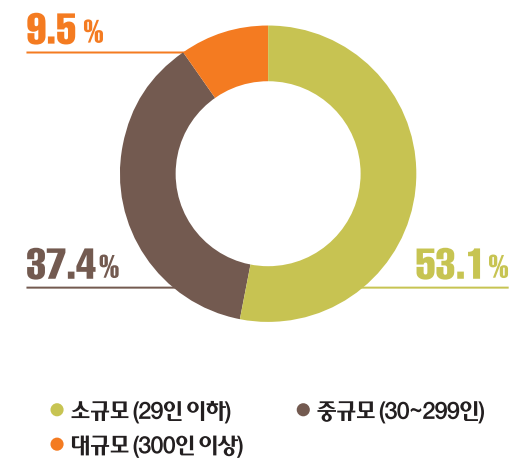
## 업종 설명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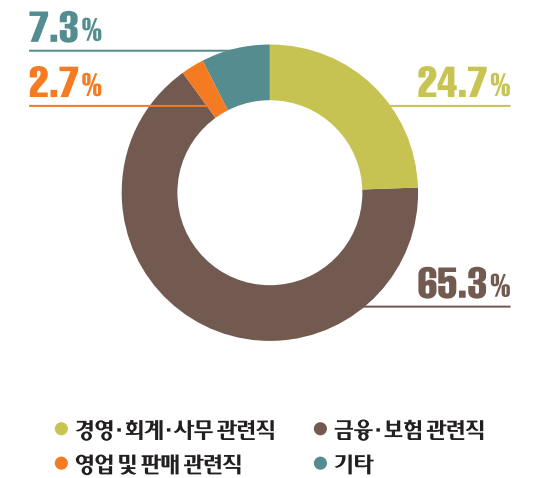
## 근로자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종별 구성



자료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17년 하반기 현재 금융업 근로자 규모는 788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26,770천 명)의 2.9%를 차지(경제활동인구 기준)
  - 직종별로는 주로 금융·보험 관련직(65.3%),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4.7%), 영업 및 판매 관련직(2.7%)으로 구성
- 금융업 근로자 규모는 2016년 하반기(807천 명)에 비해 2.3% 줄어들어 18천 명 고용 감소





## 구인·채용 현황

- 2017년 하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구인인원은 11.6천 명, 채용인원 11.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0.4천 개
  - 금융보험 업종의 미충원율은 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p 낮고 전산업 평균(11.7%)과 비교하면 8.7%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9.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5%)'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 관련직(65.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3.3%), 영업 및 판매 관련직(7.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62.8%), 부산(7.7%), 경기(5.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고졸 이하',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인원 비중이 1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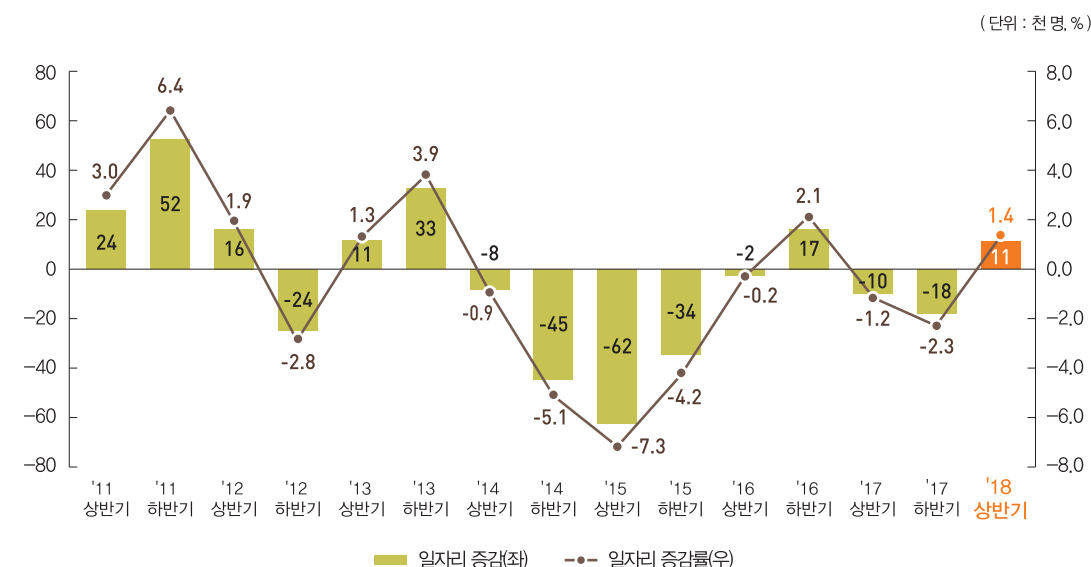
## 경기전망

- 은행업 경영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육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방향, 기업대출태도 강화기조 약화 등으로 기업 대출은 증가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규제 강화, 국내경제 회복세 소폭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시장금리 상승과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로 이자이익은 증가하지만, 규제 강화와 경쟁심화의 영향으로 이자수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증가세 둔화, 조달비용 상승, 건전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유지하나,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규제 강화, 자동차 금융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영업자산 증가세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 경쟁 심화, 조달비용 상승,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 보험 업종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나,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둔화, 시장 포화, 제도적 요인 등으로 보험 업종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 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 업종의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2018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 금융·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sup>1)</sup> 추이



### 일자리 증감률(%)<sup>2)</sup>

'14하반기	'15상반기	'15하반기	'16상반기	'16하반기	'17상반기	'17하반기	'18상반기
-5.1	-7.3	-4.2	-0.2	2.1	-1.2	-2.3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18년 상반기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상승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에서 고용이 증가하나, 영업 및 판매 관련직에서는 고용 감소 예상

## 용어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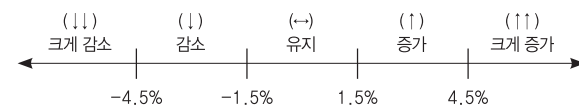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취업자 수 - 전년 동기 취업자 수



**일자리 증감률(%)**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취업자 수}} \times 100$



**일자리 증감률의 정성적 판단 기준**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 인원}}{\text{구인 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2016)

##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산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산업은 고용보험DB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 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





